

ESG C-Suite Newsletter

Vol.6 | March 2024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ESG) 공시 기준 확정, 기업 리더가 해야할 일은?

Hot Topic

- FOCUS 01** 국제사회 논의 후 4년 만에 공시 기준 확정
- FOCUS 02** 공시기준 표준화의 두 가지 시사점
- FOCUS 03**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ESG) 공시 기준 비교 분석
- FOCUS 04** 기업 리더를 위한 ‘ESG To-Do 리스트’

FOCUS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은 최근 자사의 ESG 정책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사인 대만과 한국 반도체 기업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비교하는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고객사가 기업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면, 이제는 협력사도 고객사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와 활동이 비즈니스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장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모두 확정된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과 함께, 기업 경영진이 챙겨야 할 사항을 짚어봅니다.

※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ESG) 공시 기준이란?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업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의 기틀을 잡고, 새로운 자본주의 패러다임을 견인한 3개 기관에서 만든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일컫습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IFRS S1, S2'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 및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ESR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 규칙'

국제사회 논의 후 4년 만에 공시 기준 확정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국제 사회에는 400여 개의 ESG 공시 가이드라인과 기준](#)이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가 연례 서한에서 ESG를 투자 결정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이후, 같은 해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글로벌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단일화를 지지하면서 공시 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여러 ESG 공시 기준 가운데 기업이 어떤 기준을 채택할지 가이드라인이 없었고, 투자자는 표준화된 기준이 없으니 기업 정보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듬해 2021년, 주요 20개국(G20)의 지지를 받아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가 설립됐고, 이후 공시 기준을 만들던 여러 국제기관이 통합되면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첫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EU가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과 기준*을 마련했고, 그간 정치적 논란으로 지지부진했던 미국도 기업의 기후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기후 공시 규칙’을 이달 6일 확정했습니다.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전 세계 146개국이 도입한 회계기준을 만든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산하 기관

*IFRS S1 & S2: ISSB가 제정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며, S는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의 약자로 S1은 일반요구 사항,

S2는 기후 관련 공시 내용으로 구성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위한 지침으로 공시 대상기업과 시기 등으로 구성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U의 ESG 공시 기준으로 2개의 공통 기준과 10개의 ESG 주제별 기준으로 구성

공시기준 표준화의 두 가지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공시 기준이 마련되면서, EU와 미국 중심의 주요국 규제 기관은 기업에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두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규제화해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던 기존 관례를 의무 공시로 전환하고, 보고하는 기업에 법적 책임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글로벌 3대 공시 기준 모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면서, 그동안 비재무 정보로 여겨졌던 ESG 정보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이 경제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글로벌 주요 규제기관과 자본시장의 합의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ESG) 공시 기준 비교 분석

글로벌 3대 공시 기준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ISSB IFRS ^S	EU CSRD/ESRS EFRAG	SEC Regulation S-K/S-X
보고 토픽	기후(S2) 및 기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S1)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포괄	기후 관련 위험
정보 이용자	투자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투자자
대상 회사	각 국가 관할 당국에서 결정	EU 상장사대기업 & Non-EU 모회사	SEC 상장사
보고 범위		중속기업까지 포함한 연결 기준 공시	
보고 Framework	4가지 핵심 항목(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공시		
보고 위치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일부	사업보고서의 일부	사업보고서의 일부
시행일	S1, S2 - FY24 (25년 공시)	기업규모 등에 따라 FY24(25년 공시) ~ FY28(29년 공시)	기업규모 및 정보 범위 등에 따라 25년 정보(26년 공시) ~ 33년 정보(34 공시)

① 공통점: 연결기준 정보 공시, 4가지 핵심 항목 공시

먼저, 3대 공시 기준 모두 중속기업까지 포함한 연결 기준으로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공시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기업이라도 공시 의무가 있는 모기업의 연결 기준 공시를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대 공시 기준 모두 기업에 공개를 요구하는 핵심 항목이 동일합니다. 3대 공시 기준은 TCFD*권고안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 목표 및 지표'의 4가지 측면에서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15년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설립하고, 글로벌 유수의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참여한 조직. TCFD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대해 비교 가능하면서도 일관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권고안 개발.

② 차이점: 정보 이용자의 범위, 공시 주제, 공시 목적

3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제정한 기관들이 지향하는 목표와 개념은 조금씩 다릅니다. ISSB와 미국 SEC는 정보의 주 이용자를 '투자자'로 정의한 반면, EU는 투자자를 포함한, 소비자, 임직원, 정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정보이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주제도 미국 SEC는 기후 관련 위험만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EU는 E(환경), S(사회), G(거버넌스) 정보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ISSB는 기후 관련 공시 기준서를 먼저 제정했고, 그 외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SSB의 공시 기준은 일종의 글로벌 기준선으로, 국가별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중국은 ISSB 기반으로 자국의 공시 기준을 이미 발표했거나 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EU와 미국은 독자적인 공시 기준을 먼저 확정했기 때문에, EU와 미국이 정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국가별 요구 사항에 따라 공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업 리더를 위한 ‘ESG To-Do 리스트’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한국도 국제사회의 공시 제정 속도에 맞춰 한국형 ESG 공시 기준 초안을 4월 중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 공시 기준 확정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감독기관의 규제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 정보를 취합한 후 공시 기준에 맞춰 보고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기업의 리더는 자본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법적 규제를 준수하고, 공시 기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 발굴하고, 가치 창출에 집중해야 합니다.

① ESG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 공시는 재무제표와 연계성이 높은 정보입니다. 글로벌 3대 공시 기준 모두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한 제3자 인증을 모두 의무화했기 때문에 공시 정보를 확신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리더는 재무제표 내부통제 관리를 담당했던 최고재무관리자(CFO)가 ESG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② ESG 중심 거버넌스 체계 수립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모두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경영진과 이사회가 지속가능성 이슈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관리 및 감독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는 지속가능성을 공시를 위한 도구가 아닌, '리스크 관리' 관점으로 인식을 바꿔야 함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ESG위원회 등 ESG 중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있는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업의 리더는 ESG 중심 거버넌스 체계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 문화와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지속가능성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③ 지속가능한 전략 위한 새로운 이정표

지속가능성 공시를 포함한 기업의 전체 ESG 전략이 기업의 이익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합니다. 기업의 리더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이정표로 삼아 자사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회사가 관리해야 할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전략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해, 전사적 차원의 투자 규모와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기반으로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부문을 매각하거나 분할해 예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거나, 산업 재해 예방에 특화된 기업을 인수해 사회적(S)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전략적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Contacts

삼일PwC ESG Platform Partner

Assurance

권미엽

miyop.kwon@pwc.com

+82-2-709-7938

Tax

이혜민

hye-min.lee@pwc.com

+82-2-3781-1732

Deal

곽윤구

yun-goo.kwak@pwc.com

+82-2-3781-2501

거버넌스센터 Managing Director

하미혜

mihye.ha@pwc.com

+82-2-709-8599



www.samil.com

© 2024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